

문서번호	지역복지본부-2869
보존기간	년
결재일자	2016.06.13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

★주임	자원개발팀장	지역복지본부장		
신민정	김연정	전결 06/13 강일신		
협조				

2016 민간자원개발 및 나눔문화활성화사업 1차 자문회의 결과보고



2016 민간자원개발 및 나눔문화활성화사업 1차 자문회의 결과보고

I 회의개요

- 일 시 : '16. 5. 18(수) 15:00 ~ 17:30
- 장 소 : 서울시복지재단 별관 10층 회의실 2.
- 참 석

순번	성명	소속	직책	비고
1	강주현	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	팀장	2015 자문위원
2	곽대석	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본부	센터장	
3	방대욱	다음세대재단	대표이사	
4	이세형	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	부장	2015 자문위원
5	최재호	현대자동차 사회문화팀	차장	
6	김연정	서울시복지재단 자원개발팀	팀장	담당팀장
7	신민정	서울시복지재단 자원개발팀	주임	담당자

주요안건

1.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비전 및 사업방향성

- 공공기관으로서 자원발굴 및 개발에 대한 재단의 장기적 역할모색
(단순자원연계에서 벗어나 횡단전개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, 복지현장지원방안 등)
- 사회복지계, 기업사회공헌계에서 바라는 복지재단의 기대역할
(현장간담회/관련정보제공/필요한 교육 등 재단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)

2. 민·관 협력 자원개발/ 나눔문화 활성화에 대한 이슈 발굴 및 의견청취

(최근 민관 협력사업 트렌드 청취, 공공에서 추진할수 있는 나눔문화 활성화 캠페인방안논의)

II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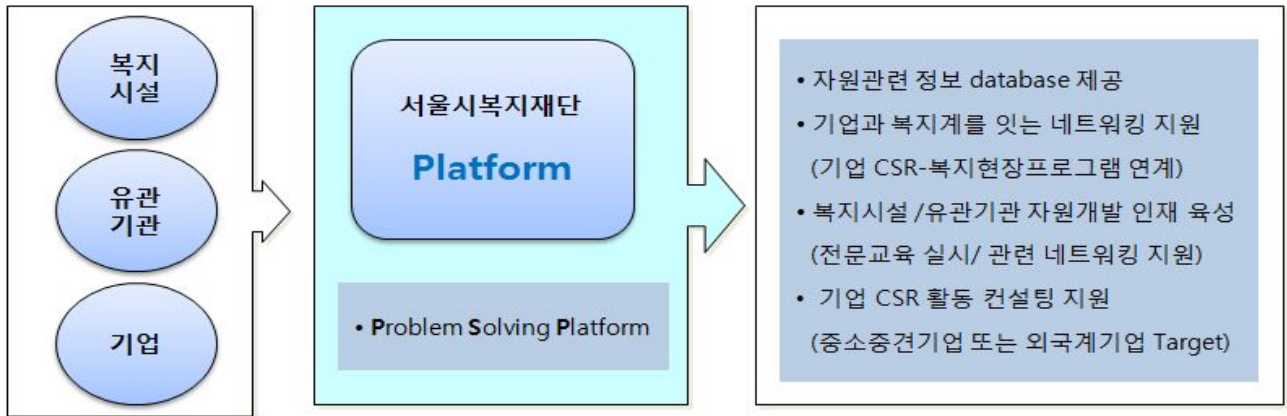
□ 2016년 민간자원개발 사업방향 및 장기적인 비전

- 양적에서 질적체계로의 전환 타당 : 사업전략 재정비 필요

- 서울시복지재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치·운영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(국가등 기부금품 모집·접수 제한 등) 등에 의해 적극적인 모금 행위를 행하는데 제약이 있어 ‘자원개발’을 전면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짐.
- 공동모금회, 사회복지협의회, 관협회, 기타 민간모금단체 등과의 유사한 방식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배분하기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 서울시 전역에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 - 재단은 자원 발굴 및 배분 등에 있어 공동모금회보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사업수행에 있어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민간단체에 비해 융통성과 대응성이 낮음.
 - 담당자 1명의 인력으로 서울시 복지자원을 개발, 발굴, 배분까지 진행하기 어려움.
 - 최근에는 전문모금기관에서도 자원 ‘개발’이나 ‘발굴’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음.
- 자원발굴 및 배분사업은 보여주기 식의 양적 성과 달성에는 좋을지 모르나,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많아 재단만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어려움. 그러나 지역 내의 자원 활용 및 공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소규모시설 지원 및 기업사회공헌 컨설팅 강화, 중소기업 및 외국계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은 사업의 규모나 파급효과 면에서 재단만이 수행할 수 있는, 필요한 사업임.
- 현재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더 나아가, 사업방향을 전면적으로 조정하여, 자원 발굴이 아닌 기업과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. 또한 재단 미션·비전과 연계하여 민간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전략 등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음.

- ☑ 2016년 소규모시설 지원 및 사회공헌 컨설팅강화 등 질적체계로의 사업방향성 전환은 타당하다고 판단
- ☑ **직접 자원발굴이 아닌 기업과 복지현장지원 및 나눔문화 활성화 역할강화**
- ☑ 재단설립목적에 맞게 비전·미션 연계 자원개발사업 사업전략 재정비 필요

□ 민간자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필요



- 현재 자원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다양한 기관(모금회, 사회복지협의회, 비영리기관 등)이 산재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, 시 차원에서 이러한 중복 서비스를 예방하는 교통 정리가 필요함. 이러한 역할을 복지재단에서 가져가야함.
- 복지시설, 유관협회, 투자출연기관 및 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자원에 대한 정보를 재단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, 기관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중간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재단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으로 판단됨.
- 플랫폼역할을 통해 서울형 복지전달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자원과 현장이 연계되는 기부시스템을 개발하고, 유관기관이나 기업 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간담회 및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, 복지현장 · 기업 및 관련단체의 업무역량강화 교육을 지원 할 수 있음
- 기업의 경우 자원봉사조직 등 인적자원이 풍부한데 비해 이를 활용하거나 지원하는 복지현장의 커리큘럼이 부족함.
시설 및 프로그램 평가 등을 통해 복지현장 관련정보에 접근이 쉬운 재단에서 물적·인적후원이 필요한 복지시설 프로그램을 Database화하여 기업 CSR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음.

복지재단의 향후 역할 : 민간자원에 관한 플랫폼 역할수행 필요

- ☑ 자원정보 database 제공
- ☑ 간담회 및 포럼 개최 등 기관 간 네트워킹 장 마련
- ☑ 자원개발 업무역량강화 교육개발 및 확산
- ☑ 기업이 원하는 CSR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-복지현장 연계

□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제언

- 기업 CSR컨설팅 Target 다양화 : 외국계 기업 및 중소기업 등

- 현재 외국계기업이 한국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지만, 사회공헌활동은 시작단계로 볼 수 있음. 외국계기업 사회공헌 활동은 주로 PR부서에서 전담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관련 정보나 네트워킹이 부족한 편임.
또한 중소기업들의 CSR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, 활동에 대한 공공지원 은 부족한 편임.
- 공공성을 띤 복지재단에서 사회공헌정보나 외국계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을 지원한다면, 기업자원을 복지현장으로 연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.
- 서울시복지재단은 중소기업/외국계기업의 CSR 컨설팅 또는 네트워킹 지원에 있어 가장 전문화되어있다는 사업 포지셔닝을 통해 타 유관기관과 차별화되고, 재단만의 고유한 자원개발브랜드 창출이 가능함.

민간자원사업 대상 다양화 필요 : 외국계기업 또는 중소기업 등

- ☑ 외국계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한 CSR 컨설팅 전문화기관으로 포지셔닝 필요
→ 복지재단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창출가능
- ☑ 공공기관 신뢰성을 활용한 외국계기업 사회공헌 간담회 개최 등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분야 민간협력대상층 확대에 기여가능

- 중소기업의 사회공헌을 독려하는 사회공헌대상 사업 추진

- 작은규모라도 지속적으로 복지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프로그램을 찾아 그 노고를 치하하고 지원하는사업을 통해 [서울형 기업사회공헌 모델]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이 필요함
- 2009~2011년에 복지재단에서 기 추진하였던 사회복지대상(Seoul Welfare Award)의 경우, 대기업중심이 아닌 소규모 기업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,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함.
- 공신력을 가진 복지재단에서 이러한 사업을 주관한다면 사회복지현장과 기업 간 지속적인 민·관협력사업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, 우수프로그램의 경우 횡단전개를 통해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가능함.

복지현장의 입장에서는 사회공헌상을 기부자 예우차원에서 활용하여, 기업과 좋은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.

소규모중소기업-복지현장 사회공헌사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역할필요

- ☑ 지속적으로 복지현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CSR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격려
 - 서울형 기업사회공헌모델 발굴 및 확산 역할
 - 기업의 지속적 CSR 활동 동기부여 및 복지현장의 기업예우로 활용가능

- 소규모복지시설 및 기업을 위한 사회공헌 리더십 교육 실시

- 현재 모금과 관련하여 개설된 교육을 보면 ‘제안서 잘쓰는 법’, ‘모금홍보실무’ 등 사업제안 및 홍보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룸.
반면 기업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소규모복지시설과 직접 연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. 이에 기업이 복지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실감 있는 교육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함.
- 소규모복지시설의 경우, 기업의 프로그램 후원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기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다수임. 이때 현장종사자의 태도 및 마음가짐이 지속적인 후원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음. 기부자를 위한 예우(환대 등)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, 자원봉사에서 물품후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.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 생활시설 등 지원이 열악한 소규모시설의 경우, 복지현장종사자가 기부자예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, 이들을 대상으로 한 나눔문화교육 등 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사회공헌 리더십 교육이 시급함.
- 기업의 경우, 재단에 비해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복지관련 관심분야가 한정적일 수 있음.
재단에서 다양한 현장의 복지이슈를 주제별로 구성해서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및 네트워크 장을 마련해준다면 다양한 모금이슈를 기업자원과 연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. [예]기업담당자 복지현장바로알기교육, 복지현장-기업간담회 개최 등

소규모복지시설 종사자 및 기업 CSR 담당자를 위한 『사회공헌리더십』 교육실시

- 소규모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후원기초, 웰컴(환대)태도, 기부자예우에 대한 기초교육 커리큘럼 발굴 및 교육실시 필요
- 기업사회공헌담당자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분야 모금(자원연계)이슈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및 네트워크 간담회 실시

- 대시민 나눔문화 캠페인 확대

- 모금회 및 비영리단체등에서 광고 등을 통해 나눔문화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, 모금실행주체로서 홍보를 할 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.

공공성을 띄고 있는 복지재단에서 대시민단위 나눔문화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거나,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알리는 문화확산에 힘쓴다면, 모금일선에 있는 다양한 단체나 기관들에 도움이 됨

- 시민과 함께 복지가슈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 확대필요 (홍보강화)

Ⅲ

향후계획

- 하반기 2차 자문회의 실시 (11월 예정)
-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상시 자문체계 구축 등
- 2017년 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 시, 의견반영